



GENESIS

Creation of the World
In the ^a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²The earth was a form and void, and darkness was over the face of the deep. And the Spirit of God was hovering over the face of the waters.

...as morning, the nth day
(1), the face of the

동성애와 신학

성경적 관점에서 본 동성애 문제



●정의호 목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M.Div)를 졸업하고, 미국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D.Min)를 공부했다. 현재 기쁨의교회 담임 목사와 캠퍼스 선교단체인 JYM 대표를 맡고 있다.



지금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현저하게 무너지고 있다. 특히 이 시대에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는 이제 한 개인이나 사회 문제에 국한 된 문제가 아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어느 한 국가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한 개인의 성적 성향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영적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동성애의 문제가 한 개인의 차원의 문제라면 이렇게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될 이유가 없다. 이것은 한 개인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우신 창조질서를 무너뜨리는 더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이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유지하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다. 그러나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범함으로 인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겼다. 그로 인해 이 세상은 마귀의 권위 아래 속하여 우리 인간이 그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3:8)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셨다(요한복음 14:30).

그 사단은 이 땅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 이로 인해 세상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조차 그 기준조차 없어지고 있다. 흰 것을 검다 하고, 검은 것을 희다고 주장하며 가르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치관이 혼돈되고, 절대 진리가 무너지는 때에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원리의 원본을 회복하는 일이다.

작은 전자 기계도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만든 사람이 정해놓은 매뉴얼대로 사용해야 한다. 만약 정해진 매뉴얼을 지키지 않거나, 임의로 작동하게 되면 고장 나거나, 폭발하는 재앙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과 인간도 하나님이 정하신 매뉴얼을 따라 살 때 가장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며,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나 그 원리를 벗어나게 되면 그 죄로 인간은 망가지게 되며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근본적인 창조 원리를 기록한 성경의 관점에서 동성에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그것은 인간의 창조 목적과 사명을 알게 될 때 보다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 인간의 창조 목적

사람이 자동차와 핸드폰을 만드는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 때 존재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시기 위해서이다(창세기1:31).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우리 자신의 기쁨이나 만족을 위해 지어진 존재가 아니다. 마치 토기가 토기장이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듯이 사람은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살도록 창조된 존재이다(이사야 43:21). 인간은 이런 창조 원리를 지키며 살 때 온전한 기능을 하는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당한 상태에 있게 될 때 우리 영혼에 최고의 만족과 행복이 주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에서 이탈될 때 우리 인생은 고장 난 기계와 같이 많은 문제가 발생된다. 그로 인해 우리 안에 많은 고통, 불만족, 허무함, 분노와 악한 감정으로 시달리며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 인간이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 살려고 할수록 그와 반대로 불만

죽과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고 방황하게 되기 때문이다.

■ 인간의 사명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 그들에게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을 주셨다. 사람은 자신들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이다.

창 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 오직 우리 인간만이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다. 그 중에 특별히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다. 사람은 결혼을 통해 자녀를 낳아 이 땅에 가득 차게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다. 사람이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거나,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혼은 자기들만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다. 그 중에 자녀를 많이 낳아 땅에 충만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결

혼의 목적이다.

■ 결혼의 원리

결혼 제도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창조 목적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내신 것이다. 하나님은 처음 남자인 아담을 만드셨다. 그 남자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셨다. 그런 상태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다.

창 2:23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로 부르리라 하니라

창 2:24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르다

남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돕는 배필을 준비하신 것이 하나님이 내신 결혼의 원리이다. 이 시대는 이런 하나님의 결혼 원리에 대한 원본과 많이 어그러져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이 하나님의 결혼 원본을 가르치고 회복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첫째 결혼의 원리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 두 성만 만드셨다. 그 외 다른 성은 만드시지 않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자인 아담에게 또 다른 남자를 만들어 배필로 주시지 않았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벗어나는 것은 불법이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거나,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금하고 있다.

레 18:22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하나님은 동성 간에 성관계하는 것은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슬리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라는 것을 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형벌이 주어진다.

레 20:13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남자와 남자가 동침하는 가증한 일을 행한 자는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죄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는 심각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기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하십니다.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는 말씀은 하시지만 그것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은 각자의 자유이다. 하나님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지 못하게 손을 억지로 뺏어서 막지는 않으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기 행동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으시고 그에 상당한 보응을 하신다 (로마서 1:26,27)

둘째 결혼의 원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한 남자인 아담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한 여자를 만드셔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원리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갈비뼈 두 개를 취하여 두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 주시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한 남자와 두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나, 한 여자가 두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슬리는 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배우자 외의 사람과 성적 관계를 하는 것은 간음죄로 정하셨습니다.

레 20:10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원리를 범하는 간음죄는 두 사람 모두 죽이라는 매우 엄격한 형벌이 주어졌다. 남녀 간에 짓는 간음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신 창조원리를 거역하는 하나님에 대한 죄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인간에게 주어진 성은 하나님의 창조 주권에 속한 것이며 사람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만드신 것이며, 결혼은 남자와 여자 두 사람만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러므로 동성애 문제는 단지 개인적인 취향이나, 이 시대에 나타나는 사회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원리를 거슬리는 죄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다. 아무도 완전한 사람은 없다. 어떤 사람은 살인의 충동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혈기가 많아 다른 사람을 폭행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컴퓨터 게임에 중독되어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런 것에 다른 사람보다 약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성향을 정당화하면서 주장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 그러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그런 약한 죄성을 인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질 때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람에게 따라 이성애에 대한 음란한 성향이 강해 그로인해 성중독에 빠진 사람도 있다. 성중독자는 자신이 성욕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그것을 주장할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의 개념으로 자신의 그 문제를 돌이키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할 문제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성향으로 간음죄를 범하기 때

문이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에게 그런 약한 성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원리에 어긋나는 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할 문제이다.

창 4:7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엮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가인은 다른 사람에 비해 시기심과 혈기와 악한 성향의 성품을 가졌다. 그래서 가인에게 죄의 세력이 자기 동생을 시기하여 죽이고 싶은 소원을 강하게 주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죄의 성향이 강하게 일어날지라도 그 죄가 주는 소원을 다스리라고 하셨다. 그렇지 않으면 죄에게 잡히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다. 아무도 완전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런 죄의 성향이 있을지라도 자신이 그 죄를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다.

어떤 사람은 가인과 같이 남을 미워하여 죽이고 싶은 충동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혈기가 많아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을 폭행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도박 성향이 강해 게임 중독으로 자기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있다. 그런 것에 다른 사람보다 약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성향을 정당화하면서 주장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러면 그 죄의 세력에 자신이 잡히기 때문이다. 자신의 그런 약한 죄성을 인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고전 6:9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고전 6:10

도적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전 6:11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 중에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와 함께 남색하는 자와 같은 성적인 죄가 포함되어 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지금도 동성애 문제를 가진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문제를 해결 받고 새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다고 아무도 그 죄를 합리화하거나 주장할 수 없다. 그 죄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런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세리와 창기 같은 그런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해결 받지 못할 죄는 아무 것도 없다. 어떤 살인, 간음, 동성애의 문제도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다 용서해주시기 때문이다. 이 동성애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하나님이 내신 결혼의 원리에서 그 문제를 인식하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것만이 이 동성애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동성애의 죄는 마귀가 이용하는 수단이다. 예수님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 지금 이 동성애라는 사건을 두고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무너뜨리는 마귀와의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전 지구적인 문제로 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개인의 문제와 싸우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한 마귀의 계략을 맞서 싸워야 한다. 그것을 통해 동성애의 문제가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해결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야 할 것이다.